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7시30분
오전 (2부) 7시30분
오전 (3부) 7시
오전 (4부) 2시
금요일 (1부) 1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주일에배
오전 (1부) 7시30분
오전 (2부) 10시
오전 (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예배 (4부) 8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3년 9월 15일 (제707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강한 자는 지혜롭다

세상에 있을 때 같이 화투를 치다보면 얼굴에 패가 다 보이는 사람이 있다. 좋은 패가 들어오면 실실 웃고, 나쁜 패가 들어오면 바로 얼굴이 굳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런 자의 패는 상대가 다 읽어버려 절대 이길 수 없다.

포커페이스(poker face), 포커를 할 때 가진 카드의 좋고 나쁨을 상대편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표정을 바꾸지 않는 데서 유래한 말로, 속마음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얼굴을 의미한다. 이런 무표정한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얼굴이며, 곧 자신감이다. 그것은 치열한 전략이고, 고도의 심리전이며, 첩통같은 방에 자제라 할 수 있다.

옛말에 '영리한 때는 발톱을 감춘다'고 했다. 그렇다. 성공하려면 감정을 중립에 두어야 한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뱀 같이 지혜로워라' 했다. 뱀은 빠가 있으나 빠가 없는 듯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가장 강한 자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자라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역시, 옆에서 뭐라 하든 감정의 기복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말 한 마디에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하고, 입술을 떨릴 때는 사람이 있다. 성질을 조금만 끓으면 기타 줄처럼 부르르 떠는 사람도 있고, 한 번 툭 치면 콜라처럼 거품 물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 것을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가정, 기업, 교회, 나아가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하신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잠25:28).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지탱해온 정신이 있다면 충효(忠孝)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儒敎)사상이다. 그 기본 이념자체는 매우 아름다운 것이나 그것이 지나치게 형식에 흐르다보니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대우받는 기현상을 낳았다. 조선의 여인들은 1년 내내 제사준비로 날을 지새워야했고, 남자들 역시 많은 시간을 조상제사에 골몰해야 했다. 그래야만 조선사회에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을 지탱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그 반증이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여기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전10:20).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는 서양의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음 뿐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타협은 곧 불신앙이요, 그 결국은 지옥의 멸망이다.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는 일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해마다 구경이나 추석 명절이면 제사문제가 큰 시험거리로 다가오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안다. 심한 경우는 제사 문제로 집안에 분란이 일고, 엄청난 압박을 받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어야겠다

정신이었으니 구한말, 제사를 금기시한 기독교의 출현에 야소(耶蘇) 귀신이니 하며 발뺌 같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것이고, 그로인해 수많은 순교의 피가 조선 땅을 적셨다. 제사를 효행의 시금석으로까지 여기는 사회에 제사를 금하는 교리를 전파하는 것은 당연히 조선사회를 무너뜨리려는 불온세력의 발호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0년이 넘게 지났다. 한국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과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사회의식의 변화라는 것이 워낙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것인지라 상전벽해(桑田碧海)의 대변혁을 경험한 이 땅이지만, 제사는 여전히 신자와 불신자들 간에 첨예한 문제로 남아있다. 더군다나 선교 초기 가톨릭의 제사용인에 따라 개신교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응이 부족한 듯하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제사문제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다(호4:6). 단언컨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지 않는다. 아니 제사해서는 안 된다. 믿는 자들에게 제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3-5).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단순한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로

는 일도 생긴다. 그러나 크게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 핍박 받은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5:10-12).

지혜는 필요하다. 제사하라는 명령은 거부할 수밖에 없지만, 평소 부모를 잘 섬겨야 할 것이고, 명절 전에 미리 찾아뵙고 인사하며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기도하라. 시험 당할 즈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전10:13)고 약속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즐거움 추석명절이 되길 바란다.

Henry

henry8829@naver.com

2013 젊은이를 위한 비전 세미나 "삶의 지혜가 여기있다. 핑계대지 말고 방법을 찾자."

●강사: 이초석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밤 7:30 ●장소: 엘루체웨딩컨벤션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3번출구 방향) ●대상: 젊은이라면 누구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하 23:1~39)



휴먼네트워크(human network)를 형성하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형성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인맥형성에 공을 많이 들입니다. 튼튼한 인맥은 성공의 디딤돌이고,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 11:30).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초석도 인맥에 있다 하셨습니다. 이승만은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서재필을 스승으로 만났고, 후에 서재필이 주도하던 협성회에 동참, 협성회보, 매일신문 등을 제작했습니다. 이런 활동의 인연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고, 조지워싱턴대, 하버드대를 거쳐 프린스턴대학원에 입학했는데, 당시 프린스턴대학 총장이자 미래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과 만나 친분을 쌓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귀국 후 국내에서 활동하다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었을 때, YMCA 선교사 도움으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맥이 날개가 되었고, 도피성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전들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는 아는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들라모렐과 그 동맹한 왕들이 침입하여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 318인을 거느리고 그들을 쫓아가 조카 롯을 찾아왔습니다. 318인은 바로 믿음과 정의의 용사들로, 아브라함의 인맥이었습니다.

인맥은 금맥이요 성공의 인프라다

니다(창14). 아브라함의 인맥형성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는 그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로 죽었을 때도 잘 나타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아내를 묻을 매장지가 없다고 하자, 그들은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창 23:6)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헷 족속과 인맥을 형성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37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 배후에서 그를 돕고 따르던 자들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용사들이 바로 다윗의 조력자이며, 다윗의 인맥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약관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인맥형성의

결과입니다. 그는 보디발 아내의 보복성 위증으로 옥에 들어갔지만, 술판장을 만나 인맥을 쌓았기에 바로의 꿈도 해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창40). 만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12제자와의 인맥을 형성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70인과 인맥을 형성하고, 또한 성령 받은 자들과,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휴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대표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인 미켈란젤로도 이탈리아의 여러 곳에 살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객과 인



맥을 쌓은 덕분에 바티

칸 궁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천지창조’를, 벽면에는 ‘최후의 심판’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만남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 광주에서 큰 기업을 이끌고 있는 한 장로가 저와 제 아들을 골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왜 아들까지 불렀느냐고 했더니, 그 장로가 하는 말이, “목사님과 벌써 26년째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아들 대(代)로 인맥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옳다 생각했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맥을 형성해 주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현대통령도 아버지의 인맥을 이어받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렇다면 튼튼하고 넓은 인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맥을 형성하고, 인맥을 관리하는 방법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

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여기서 ‘충성’이란 곧 신실한 약속으로도 해석됩니다. 지극히 작은 약속도 허투루 하지 않는 자는 큰 약속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한 가난한 아이에게 생일이 되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뒤,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사건이 터져 일제 경찰이 수색을 강화하였는데, 그 상황에서 안창호는 어린 아이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선물을 들고 나갔습니다. 결국 안창호 선생은 일본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

니다. 이런 안창호 선생을 펜토로 삼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 아닐까요?

40~41점의 말씀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 내주면, 오리를 걸자고 하는데 십리를 걸어주면, 그 사람이 내

know-how보다 know-who가 중요하다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째, 선물은 인맥을 형성하게 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잠18:16).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부와 지혜를 배우기 위해 먼 길을 올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가지고 왔다고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물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 인맥을 형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맥을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인맥을 형성하는 방법은 로마서 12장 1절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세상 사람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살면, 그런 당신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천구하자고, 동맹하자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 할 겁니다. 모든 겸손과 은사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 사람들이 그런 당신과 사귀고자, 그런 당신과 하나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맥은 깊고 넓어질 것입니다.

소인배는 인연이 인연인지 모르나, 군자는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인 줄 알기에 그것을 사다리 삼아 오릅니다. 정보나 지식, 행복과 믿음도 인맥으로 비롯되는 것을 알고, 작은 만남도 귀히 여길지나.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060)700-0633
(060)700-02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뿌린 대로 거둡니다

첫째 사내가 샘터로 다가와서 물을 마시고는 돈주머니를 떨어뜨리고 자리를 뛴 습니다. 얼마 후, 둘째 사내가 와서 물을 마시려다가 돈주머니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둘러 갔습니다. 그 후 셋째 사내가 나타나서 물을 마시고는 샘터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첫째 사내가 허겁지겁 숨을 헐떡거리며 나타나서 셋째 사내를 보고 “네 돈주머니를 당신이 가져간 것이 틀림없이 돌려 달라.”고 하자 “네가 본 적도 없는 돈주머니를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셋째 사내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싸움을 벌였고, 첫째 사내가 분을 이기지 못해 셋째 사내를 칼로 살해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어느 선교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사내는 돈 잃고, 본의 아니게 살인자까지 되었습니다. 둘째 사내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남의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사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고도 어찌 공평한 처사를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하였습니다. “첫째 사내는 잘못된 것은 없지만, 그 돈은 그의 아버지가 훔친 것이니라. 둘째 사내는 돈을 도둑질당한 자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리고 셋째 사내는 오래전에 첫째 사내의 형을 죽였기 때문에 그 동생으로 하여금 원수를 갚게 한 것이니라. 너희 인간들은 왜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정직한 사람이 힘들게 사는지를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 눈에는 내가 걷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니라.” 인과응보(因果

應報)에 대한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한 대가가 오고, 선을 심으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추수할 때 좋은 수확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좋은 씨앗은 받아들이고, 나쁜 씨앗은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622년 102명의 영국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도착하여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강대국으로 만든 기초가 되었습니다. 셋째,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은 농부는 가을이 되어도 거두어들이길 곡식이 없고, 땅 흠려 노력하지 않으면 수확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의 삶에 목표를 두고 살아 가길,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미 모두 준비하신 무한한 축복을 수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관섭

kwansup1029@hotmail.com

모르는 게 죄지

어느 깊은 산골에 나이 많은 과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손바닥만 한 밭떼기가 있어 그 동안 근근이 먹고는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 힘에 부치자 아예 그 일마저 못하게 되었다. 웅색한 살림에 저당 잡힐 것도 마뜩찮은 그였기에 날이 갈수록 생활이 말아 아니게 되었다. 그런 그의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그 지방 사회복지사에서 사람을 보내왔다. 그 담당 직원이 이르러보니 그 깊은 산골에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이 금세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해 보인다. 그 직원 안쓰러워, “아니, 아드님이 서울에서 잘 산다더니, 그래, 소식도 없습니까?” “아무렴요. 그놈이 그래 봐도 효자요, 효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편지를 보낸다고요?” “그래요? 어디 좀 한번 봅시다.” 그 직원은 ‘천하에 뭉쓸 놈이 어머니를 이렇게 내팽겨쳐구선,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낱작으로 도대체 뭐라고 문안하는지’ 금금하

여 편지들을 들추자니, 그 사이에서 ‘복’하고 종이가 한 장 떨어지는데, 가만 보니 이게 백만 원짜리 수표가 아닌가!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물었다. “아, 그거요? 그제 금세, 아들 녀석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들어 왔기는 하던데, 도대체 뭐가 뭔지 알아야지. 그런데 그것이 뭐답니까?” 아홉째! 아들이 생활에 보태 쓰라며 매번 그렇게 거액을 보내주었던단, 어머니는 그 가치를 몰라 그렇게 곡색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게다. 모르는 게 죄다. 아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모르니 죄에 속고 마귀에 속아 잘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여호와를 알지 못함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호6:3).

예수중심편집실



::Praise the God::



귀를 기울이세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없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송시를 지은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Elizabeth Pason Prentiss, 1818~1878) 여사는 27세에 목사의 부인이 되었다. 몸이 매우 약했던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며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틈틈이 시를 썼다. 결혼한 지 11년이 지난 후,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으로 두 아들을 잃은 프렌티스 여사는 “이번에 우리가 늘 가르치고 믿어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구려. 말씀과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하는 남편의 위로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나 이 찬송시를 지었다고 한다.

가지는 나뭇잎이 바람에 떨어졌을 때 보인다. 우리의 믿음 역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나타난다. 곧 잠깐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다. 포로 출신의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믿음을 드러냈고(단6장), 스데반 집사는 돌 세례를 맞으며 죽음을 맞는 그 순간에 믿음의 빛을 발했다(행7장).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길 수가 있어?” 하며 좌절하고 낙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절망 앞에서 더욱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총회장 목사님은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

로 고단에서 제명되었을 때, 교회로 돌아와 성도들과 함께 잔치를 했다고 하신다. 믿음의 꽃을 피운 것이다. 믿음은 지식들과 재산을 모두 잃는 연속된 고난에 불평하다가 마지막에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래서 감정의 축복을 받았다(욥42:1~6). 하나님은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오히려 더욱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그분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분을 오해하지는 말자. 아들들을 잃는 슬픔을 겪은 이후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는 눈물 어린 고백과 함께 고난 중에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한 프렌티스 여사처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자.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20세기 초,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은 증권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증권 파동으로 인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서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다른 병동 쪽에서 찬송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그는 그 찬송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찬송이 끝나고 시작된 목사의 설교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환자들은 모두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기도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그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때 어두웠던 굴속에 서서히 빛이 비치더니 나중에는 그 굴속이 온통 빛으로 가득 차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날로 청년은 마음에 용기와 평안을 얻었고, 병원에서 나와 새로운 꿈을 품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전역에 1,700여 개의 백화점을 경영하는 백화점 왕이 되는데, 그가 바로 미국 백화점 업계의 전설 제이 씨 페니(J.C.Penny)입니다. 삶의 희망도 없이 어둠 가운데 있던 그를 빛으로 끌어낸 것은 찬송과 말씀, 그리고 기도소리였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신재식 전도사

blessedmc@naver.com

::성경에서 배운다::

기적을 부르는 믿음

팔다리가 없는 '희망전도사' 닉 브이치치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며 강연자이자 작가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가 내한 후 한 토크쇼에서 뜻밖의 발언을 했다. "저는 신발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에게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 내는 기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에 어떤 이들은 황당해하거나 비웃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그의 바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그리고 기적을 부를 만한 믿음인지 공감할 것이다. 엘리야는 이런 믿음의 선지자였다. 왕이 타락한 시대에 백성들은 3년간 기근으로 고통 받고 있었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비를 내릴 것을 말씀하신다. 이에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기도로 대결해 불을 떨어

트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약속을 온 만민 앞에 선포했다.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비밀이 있다. 첫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엘리야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려고 왕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것이었다(왕상18:1). 예전에 들은 한 실화가 있다. 산속의 한 교회에 은혜가 충만했던 자매 몇몇이 기도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폭우로 불어난 강물을 보고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해보자며 불어난 강물 위를 걷다가 위험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개인이 시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위에 서는 것이다. 둘째,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열왕기상 18장 30-37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번 대결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믿음의 회복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며 예배의 회복을 선포했고, 불을 내리기 위한 기도에도 단순히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정도가 아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길 원하심'을 간구했던 것이다. 셋째,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과 거짓 선지자 850명에게 도전장을 내릴 수 있었고, 또한 바다위에 손바닥만 한 작은 구름일지라도 조금의 의심도 없이 왕에게 비가 많이 올 것이니 비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어서 산을 내려가라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 믿음의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그 귀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하인명

renming@daum.net

Good News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 때마다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고향을 찾습니다. 특히 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많은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든 고향을 향하는 진풍경을 연출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을 따뜻하게 반겨주는 가족 친지들이 있는 고향을 사모하며 그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들이나 돌아갈 고향조차도 알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은 오히려 명절이 되면 더 처량하고 쓸쓸한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겠지만, 돌아갈 고향이 없는 사람들은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날이 안 왔으면 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향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 우리들이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의 한 성을

예비해 두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 음부에서 유리방향을 비추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어야 백년밖에 살지 못하는 현세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내세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현재 나의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미리 안내자를 결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좋은 안내자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며,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Q&A

Q: 교회에 가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고 해서 주일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교회나 교파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롬10:13).

그러나 교회에 가면 귀찮고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도는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골 2:19).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5)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교회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영적 묵욕량과 같은 곳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새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곳입니다.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지 말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히12:2).



이초석 목사 잠실실내체육관 집회
10월 1일(화) 저녁 8시
02-533-9191, 1600-0688